

○ 새만금산단,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지원 흔들림 없이 이어간다!

▶ 친(親)기업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새만금이 첨단 전략산업 패권경쟁 시대에 전초기지 역할 수행

* '23년 10조원 투자유치 목표를 향해 전진할 예정

< 기업 지원 주요내용 >

- ① 기업 전(全)활동 밀착지원을 위한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 ② 기업 투자환경 변화 신속파악, 업종추가 등 규제 개선
- ③ 이차전지 기업지원을 위한 방류관로 건설 추진
- ④ 전력 수요 폭증 대응 전력공급시설 적기 건설 추진
- ⑤ 국가첨단산업(이차전지)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화학사고 예방체계 강화

지난 6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2013년 새만금청이 설립된 이후 9년 동안 새만금 국가산단의 투자 유치 규모가 1조5000억원이었다”며 “그런데 우리 정부가 출범한 후 지난 1년간 30개 기업에서 그 4배가 넘는 6조6000억원의 투자가 결정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대규모 투자유치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새만금청이 개청되고 9년동안 이루지 못한 새만금 산단 투자유치가 현 정부들어 이렇게 급속하게 이루어진 이유가 美 IRA에 대응한 이차전기 기업의 국내투자 필요성과 대규모 전력·용수공급, 부지 확장가능성,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우수한 입지여건과 더불어 기업의 투자환경 변화를 조속히 간파하고, 맞춤형 산단계획변경, 각종 인

허가를 원스톱으로 지원한 새만금개발청의 적극적인 제도적 환경을 조성한 결과로 보인다.

이에, 새만금청과 농어촌공사는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親기업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여 새만금 산단을 매력적인 투자환경으로 조성하여 첨단전략산업 패권경쟁 시대에 전초기지가 되도록 매진하고 있다.

기업의 투자환경 변화를 간파하고 신속히 대응한 새만금청의 제도개선사례를 살펴보면 정부의 경제규제혁신TF(22.9.5)에서 발표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분야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에 착안하여 산단 입주업종을 검토한 결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업종이 입주제한 업종임을 확인하고, 새만금 산단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였다.

폐배터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을 산단 입주대상업종에 추가로 국가적으로는 이차전지 원자재 공급망 안정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폐배터리 순환경제 분야 투자수요 선점 등 새만금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새만금청은 산단 내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규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원스톱지원센터를 올해 5월에 개소하고 그간 투자유치 부터 공장 운영 과정 등 기업활동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일원화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첨단산업(이차전지)의 기업부담 환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이차전지 기업은 용수 사용량이 많아 폐수 배출량이 많고, 공정 특성상 염분농도가 높아 공공폐수처리장으로 유입이 어려워,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개별적으로 방류관로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기업에서 개별 관로를 설치할 경우 관로 설치시마다 도로 굴착이 필요하고, 지하공간에 많은 관로를 매설하게 되면 향후 지하공간 부족과 지하시설물 관리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 방류관로 건설 추진(총 사업비 약302억원)에 필요한 설계비 등 10억원을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는 기업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 정부 정책방침이 새만금 국가산단에도 적용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새만금 국가산단에 이차전지 기업의 입주가 폭증하면서 `24년 상반기부터 전력 부족이 예상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전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전 측에 비응변전소에 변압기 2개 추가 설치를 요청했고, 한전은 새만금개발청 건의에 따라 '23년 연말에 변압기 1개, '24년 상반기까지 1개 설치를 신속히 결정하면서 단기 전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비응2 변전소 건설 시기를 당초 '26년에서 1년 단축해 '25년까지 건설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변전소 2개소도 전력수요에 맞춰 순차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차전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기술·신공법의 국산화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기존 사업과 달리 새로운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공장 설계단계부터 위험성평가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화학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은 화학물질안전원, 군산시와 화학안전성 확보 기술지원 업무협약을 9월 체결하면서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예정기업을 대상으로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하여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화학물질안전원은 △취급 화학물질의 반응, △화재·폭발 위험성 분석, △시설 안전성 평가 등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관간 협력 체계 강화와 화학물질안전원 내부 전문가 인력을 활용한 기술지원 협력 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안전을 담보하고 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소통형 모범협력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애로사항 해소 등 규제개선과 폐수 및 전력공급 등 실질적인 행정지원으로 기업친화적 산단으로 조성하여, 새만금이 이차전지 신기술 패권경쟁의 시대에 전초기지가 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